

# “餘裕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흐름을 만들 때”

金寬旭  
大昊建築研究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고 미래의 자기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잡음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의 우리 인간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의 연속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누구에게나 幼年, 青年, 長年 그리고 인간성숙의 老年時節이란 우리 일생의 몇가지 分類 속에서 각자의 독특한 갈등과 불안과 그리고 독자적인 방향설정 속에 사람은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는지도 모르겠다.

어린시절은 하나의 模倣-成長하며 자기의 고집과 자기 방식이 형성되다가 학교의 스승이나 부모, 선배들의 얘기 속에 항상 부정적이며 ‘새로운 자기’를 찾으려다 한순간 정신 없는 순간의 흐름 뒤에, 역시 우리는 지난간 先代들이 얘기하고 이루었던 어느 대상들에게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사는 것 자체는 個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모든 개체는 전체 속에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이고 각 개체의 하나하나 됨됨은 전체 속에서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도 않고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체는 하나의 개체운동으로 이루어지며, 시대적으로나 역사적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時間帶의 특성이나 개성은 쉽게 무리지어 우리들의 지난 시간 속에 하나의 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 속한 한 구성요소이며, 자기 자신으로 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국가 그리고 세계인류라는 모든 인간의 領域 속에 크게 들어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와 생각 하나하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이지 않으면서도 크게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 세대와 우리 환경을 자기 것이 아니라 고집하고 자기만이 피할 언덕을 찾을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가 속한 환경이나 사회 속에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일체감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되돌아 볼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많은 경제적 성장도 있었고 학문의 교류도 있었고, 선진 문화의 홍수같은 流入도 있었고——. 짧다면 짧은 10여년간 외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사회의 질적·양적 변화는 틀림없이 괄목할만 했다.

월남전의 시작과 함께 재정비된 경제정책으로 우리의 살림이 50年代, 60年代의 그냥 살아가는 욕구해결의 차원에서 70년대의 급속한 중동건설 경기로 인한 재도약, 이제는 오히려 상대국들에게서 질투의 대상이 되어 가고 경쟁의 대상이며 모범스런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200년에나 한번 돌아 올 수 있을까 하는 人類의 文化·스포츠 제전인 Olympic도 우리가 흔쾌히 할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너무도 많은 表面的 變化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누구도 부정 못하리 만큼, 우리 개개인은 자신의 가족단위나 자기 개체로나 지난 날보담 먹고 즐기는 외형적면에서 많은 비교가 됨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의 주변 환경에서 수 많은 변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표면상의 변화 외에 우리에게 더 큰 삶의 풍요로움이 수반되고 있다. 환경의 질이 높아 갈수록 그 속의 행동 역시 옛것과 많은 변화를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버는 방법도 스스로 알기 시작했고, 동시에 쓰는 방법도 알아 가는 것 같다. 방법은 개체가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한주일의 躍日가는 것도 알고, 주말이 뭔지 그들의 행동 속에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각종 전파, 매스콤(Mass communication)을 타고 — 그 속에서 우리는 특히 현대의 우리 모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조명할 수 있고(…이는 오직 과거에 대한 비교지만…) 우리 모두의 현재의 表現結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제는 거의 時間帶라는 것이 없는 동그란 지구 어느 곳곳이건, 이제는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모든 흐름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클 잭슨'이 어찌 생겼으며 그가 몇번 정형 수술을 했는지도, 미국에선 누가 Florida에서 휴양하고 아무개가 암으로 죽었고, 소련의 누구는 누구의 편이라는 등,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좁은 우리의 주위에서 요즈음 한창의 프로야구·프로축구의 성적들, 그들의 개개인의 비밀까지, 심지어 독일의 '분데스리가', 영국의 축구 리그(League)의 결과까지—, 한번 자고 깨든 어스레 해질녘이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쉽게 읽고 들을 수 있다.

아무튼 우리는 꽤 많은 문명인이라는 좋은 터울 속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게 됐다. 너무 과해서 그런지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현대병이란 이름도 자주 듣고 '스트레스', — 그래서 우리는 국민체조로만 알던 행동이 이제는 현대라는 이름아래 현대인의 '만병통치의 수단'으로 DISCO'다 '에어로빅'이다, 이젠 "水中체조 에어로빅"이 유행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말 '수제비'도 못 먹던 시절이 옛 그제 같은데 그렇게 빨리 우린 變化를 갖을 수 있었고, 이젠 모든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대의 풍물이 온 우리 사회 주위에 너무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New York의 건달, LA의 건달 풍물들이 이젠 우리 사회 여기 저기서 비슷한 상황을 연출도 한다.

아무튼 변화는 빠르다.

外形의—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고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린 너무 빨리 받아 들이고 너무 빨리 적응하여 그렇게 쉬운 변화를 찾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형성해 가야 할 흐름

의 가치관을 안타깝게 잊고 있는 듯 싶다.

배워오는 모든 변화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알고 지켜야 할 '맥'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는 듯 싶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없고 쉽게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전체의 한 개체라 생각할 때, 우리 個人的의 행동과 생각이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잊고 있는 듯 싶다.

우리는 현재 긴 시간대에 놓여 있는 하나의 場에 속해 있으며 순간이 지나가는 한 支点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이 현재를 지키고 긴 時間帶에 큰 흐트럼없이 우리에게 부과된 한 영역을 이루어 늘 책임은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의 현재의 행위나 사고 형태가 크게는 다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다음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같다.

또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우리 도시의 변화에 대해 얘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한다. 국토발견의 차원에서 그렇고 전통계승에서도 그렇다.

옛 도시가 허물어져 가고 경제성장 에 따른 재미나는 변화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행위 자체는 그 자체도 세대의 영역을 따라 숨가쁘게 앞을 쫓아 많이도 변했고 주변의 환경, 시설 그에 따른 기능의 해석까지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이런 저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형태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더라도 어쨌든 행위 자체는 하나로 집약된다.

가장 중용적일 수 있는 동양의 멋이 어떨 때 극한적 이론이나 행위자체로 표현될 때 우리는 무서운 사회의 속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현재의 우리를 두렵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방향없는 소용돌이 속에 자신들이 침전되고 있음을 느끼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서울에만 900여개, 전국으로 2,000

여개의 건축사회—여기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듣고 보곤 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평가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얘기를 너무도 쉽게 혼자만이 쌓인 영역에서 맴돌려고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많다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많다고 느끼는 이상한 우리의 피해의식이 얘기되기도 하고, 아수라장 같은 설계수주활동 속에 너다 나다—뭐가 그렇게도 나은지 모르나 남보다 나은 자신의 면만을 주창하는, 오로지 자신하나—뭔가가 그렇게 한숨에 달리게 하는지… 뭔가가 그렇게 안타까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의 행정조사도 받고 허구헌날 우리 모임회에서, 놀라운 공문도 내려 오기도 한다.

어쨌거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을, 서로가 외로울 때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더 행복하게 생각해야 될 터인데, 아직 우리는 현재의 모순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누가 우리 밖의 테두리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 같이 서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공감의 터울이 생겨나지 않고 더 오히려 자신 개체의 영화를 위한 것인지 상대를 질시하고 개체를 파괴함으로써, 나아가 자신이 속한 큰 덩어리를 파괴하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현재의 자기가 속한 위치, 환경 앞에 항상 더 많고 더 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을, 一部の 우리는 너무도 큰 것을 보지않고 현재의 속한 그 분위기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錯覺하고 자신의 위치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

어차피 우리는 인간인 것을—우리는 빨리 인식하는 필요가 있다. 얼마나 우리가 알면 알 것이며(敗北나 虛無主義的 얘기가 아닌…) 얼마나 많은 지식을 혼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짧은 우리의 일생에, 그 짧은 지식의 修學期間 동안 다 배우지 못한 어설픈 얘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자기가 하는 만큼, 그것이 흐름에  
속한 우리 각자의 직분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우리가 할 것들이 많  
아진다.

우리 個體의 자라오고 살아온 그  
런 분위기들을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은 특성있게 가지고 있다. 그것이 크  
고 작든, 그것이 어떤 가치 수단의 정  
도에 있든, 그것은 나름대로 純粹한  
개체만의 분위기가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하나의 특성들이 발전  
되고 인식되어 서로가 융화될 때 우  
리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形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現在 속에서 變  
化하고 있는 여러 事件 속에 항상 부  
정적인 것이 아닌, 아무도 밟게 느끼  
지 못한 부분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서  
서히 우리의 흐름이 形成되고 있음을  
잊어서도 안된다.

짧고도 빠른 최근의 사건 속에서 우  
리는 우리의 흐름이 순간적 변화 후에  
걱정하던 모든 사건들이 끈질긴 우리  
의 고집 앞에 재 회전되어 오는 例들  
을 볼 수도 있었다.

항상 製圖板의 하얀 종이 위에 새까  
만 연필 가루와 함께 하루를 지내며,  
교수님들이며 선배들이 얘기하던, 그  
꿈같은 서양건축사의 희미한 기억들  
이 이젠 쉽게 우리의 눈앞에서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이 옛보담 빠를 수도 있  
음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Salesman이면 이미 다  
볼 수 있었던 것이기에 웬만한 경영  
주 앞에서 쉽게 例를 못들던 우리들이  
이젠 비슷하게나마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어릴 때 교과  
서에서의 이론에 체험이 결부되어 더  
더욱 우리는 용어를 쓰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됐다.

이젠 외국에서의 경험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와 그들이 체험했던  
학문이나 이론이나 실무에 관한 얘기  
들이 우리에게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  
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우리 모두는

서서히 새로운 감각으로 작품에 쫓  
어들이 시작하고 있다.

작년 우리 건축계를 즐겁게 했던  
여러 종류의 Competition에서 우리는  
이런類의 경험을 충분히 취득했고 옛  
날의 해석과는 점차 발전할 우리의  
환경을 쉽게 느끼게도 됐다.

속속 올라가는 서울 중심부의 건  
물 속에서 외국 건축가들의 실력도  
느끼게 되고 그들의 도면 속에서 우리  
가 실제 해보지 못한 요소들의 처리  
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현  
대적 기교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고 배  
울 수가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는 너도 나도 새로운 가  
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뭔가 새  
로움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충족  
감과 포근함에 우리는 들뜨게도 됐다.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중의 일부는 열  
심히 기회를 찾아 그들의 것으로 소  
화를 시켜가고, 일부는 순수한 모방의  
행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발  
전하고 있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새  
로운 우리의 영역을 찾게 되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위  
가 형성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음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듯 變化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를 비추어 볼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변화하는 주변 속에서 우리  
는 이렇듯 조금하지 않는 여유를 부  
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하나의 일을 가지고 서로  
를 질타하고 순간의 일들을 가지고 모  
든 것이 자기 해석으로 방향 잡기를  
바라는, 애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  
는 행위의 연속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 이렇게 많은  
時間帶 속에 활동하는 우리의 시대적  
위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의 위치  
를 충실히 지킴으로 인해 더 나은 우  
리의 미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세대가 활동할 時期, 더 많은 지식  
과 능력이 形成되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  
리로 인해 새 환경과 더 나은 일에  
대한 충족감으로 더 기쁘게 미래를 살

도록 하자.

넓고 깊고 무한하고 인류와 함께 시  
작된 우리의 사회——, 아직 우리가  
모르고 아직 우리가 점칠 수 있는 깊  
은 세계가 있음은 얼마나 즐겁고 일  
할 욕망이 생기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란 그렇  
게 많지 않은 것이라 겸손을 말할 때  
우리는 뭔가 현재를 알차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를 만족하고 지금의 모든 일들  
이 미래를 위한 것이고, 지나간 수많은  
변화를 깊이 의식하면서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의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의 과거의 과정으로 생각되어 더 좋  
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면, 그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우리에게 흐르는 추억이 필  
요한 시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갖  
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  
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 줄 것인가?

초조하지 않은 생각과 불안한 마음  
가짐이 없이 길게 우리의 경험을 쌓  
아 우리의 History를 만들 때다.

확신을 갖는 생활태도, 모두들 여  
유있는 마음과 깊은 미래에 대한 상상  
으로 우리가 갖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 반드시 과정을 통한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하고 우리의 일  
들을 충실히 받아들일 때가 우리는 이  
제 시작되고 있다 생각하자.

지나온 수많은 과거의 얘기 속에 부  
끄럽고 우스꽝스런 태도들을 떨쳐 버  
리고 서서히 우리는 우리 후예들에게  
역사의 흐름을 일깨워 주고 긴 인생  
의 철길을 달리는 지혜를 아르게 주  
자.

혁신적 사고방식이나 기회주의적 사  
고방식 같이 그렇게 갑자기 뛰고 쫓기  
는 생활태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짧  
은 인생기 동안 주어진 시간대만을 충  
분히 활용하고 작든 크든 자기의 위  
치를 의식하게 될 때 또 다른 여럿이  
모여 큰 덩어리의 시간대를 형성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  
이다.